

책속인물에게 보내는
한글 손편지

제6회

To. 개돌이

개돌아! 안녕?

난 가을이라고 해.

나도 네 주인 준우가 너를 키우는 것처럼 강아지를 키워~

그래서 그런지 너랑 준우랑 많이 통하는 게 약간 공감이라.

오해하면 나도 우리 초코가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.

초코가 누구냐고? 초코는 우리 집 강아지야.

언제 초코가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냐면, 내가 밥을 먹고
있을 때 식탁 옆에 앉아서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.

꼭 '누나~ 나도 한입만~' 하는 것 같아.

뭔지 알지? 너도 그런 적 있었을 것 같아.

또 한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.

내가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신발을 막 신고 있는데, 초코가
나한테 오가지고 내 발 위에 자기 발을 딱 올리면서 '누나,
제발 나도 데리고 가. 응?' 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.
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냥 두고 나갈 수가 없었어.

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같이 차를 타고 학교에 간 적도 있어.
너도 이런 적 한번은 있지?

근데 너, 요즘도 준우를 따라 학교에 가고 있나?

계속 같이 갔다면 이제 선생님도 널 예뻐하시겠다. 그렇지?
아니면 계속 혼내시다가 미운 정이 드셨을 수도 있어.

어떤 면에서든 정이 들어서 네가 학교에 안 가면 선생님께라도
허전하실 거야.

그리고 준우에게 이렇게 묻겠지.

"준우야, 오늘은 너네 개 안 오셨냐? 너네 개 어디 갔냐?"